

앞으로의 농촌지도사업은 농정지도를 보강하고 경인지도를 강화하며 나아가 생활환경개선지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비중을 두어야한다. 그러므로서 농민들의 걱정과 의구심을 해소하고 농가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하여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해야한다. 또한 깨끗하고 편리한 농촌환경을 조성하므로써 쾌적한 삶의 터전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한다.

우리 농촌을 풍요로운

농촌지도사업의 나아갈 길

삶의 터전으로

정 용 복

전 농촌진흥청 농촌영양개선연수원장

최 근에와서 우리 농민들은 심각한 불안과 걱정속에 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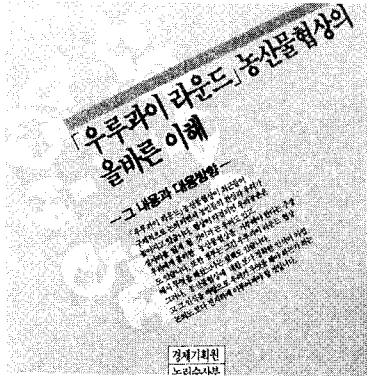
첫째는 세계각국대표가 참석하여 협의중에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중 농산물무역의 자유화가 어느선에서 타결될 것이며, 이러한 결정이 우리농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다.

둘째는 평균 1.4ha의 농지를 보유하고 열심히 영농활동을 하는데도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의 가구(家口) 소득에 비하여 크게 격차가 생기고 있어 과연 우리농업에 장래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걱정이다.

셋째, 금년 9월부터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검사의 실시에 따라 우리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이 검사결과 폐기처분을 당하지는 않을까하는 것이며,

넷째, 매일 TV화면을 통해 접하는 호화로운 도시생활의 모습을 보고, 우리농촌도 언제 도시사람들처럼 편리하고 화려로운 좋은 환경에서 살아볼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고,

다섯째, 금년 10월부터 실시키로 되어 있는 농지임대차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서면으로 농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대농에 한정된 문제이기는 하나, 그동안 임대해온 농지를



농민들에게 농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지도가 보강되어야 한다.

지주로부터 해약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등을 하고 있다.

이와같이 우리농민들이 당면하고 있는 걱정과 불안의식을 불식하고 농가소득을 높여 살기 좋은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농정방향의 정립과 아울러 농촌지도사업에 있어서도 새로운 방향의 모색과 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농촌지도사업의 새로운 방향으로써 농민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고 잘살수 있다는 신념을 심어주는데 필요한 농정지도의 보강과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필요한 경영지도의 강화, 농약잔류기준치 이하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재배법지도 그

리고 농촌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생활지도사업의 보강에 대하여 제언코자 한다.

1. 농정지도의 보강

농업을 둘러싼 국내외정세의 불안과 농정에 대한 의구심은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저하시키고 나아가서는 이농(離農)을 심화시키는 주요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농업에 관련된 중요한 국내외정세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이를 농민들에게 소상하게 전달하여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 새로운 농정의 실시에 있어서도 농민들에게 그 입안배경과 정책의 목적 및 내용, 정책실시에 따른 집단간의 이해관계, 정책효과 등을 잘 이해시키고 협조를 구하는 농정지도(農政指導)가 보강(補強)되어야 한다.

이해와 협조 구하는 자세로

요즘 매일처럼 메스컴을 통하여 보도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문제만해도 그렇다. 이번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는 『농

산물의 전면수입개방이 불가피하다』는 등 단편적인 보도에 접한 농민들은 값싼 외국농산물을 자유로이 수입하게 되면 우리농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불안과 초조함을 견디지 못하여 그 결과가 지난번 농민후계자모임에서 농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으로 폭발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와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1947년 『무역과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어떤 목적으로 체결되었고, 그 협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이해득실이 있었으며, 그 협정을 어떤 방식으로 수정보완하며, 이번 우루과이라운드는 언제부터 시작하여 언제까지의 기간으로 협상을 하고 있으며, 이번협상에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쟁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의 카드는 무엇이며, 각 카드별로 타결을 전제로한 정부의 대응방안(정부가 취할 일과 농민이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이를 농민들에게 농촌 지도사업을 통하여 전달하고 이해시켜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농민들도 사정을 정확히 알

고 자기문제로 받아들여 스스로 대응토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부작용, 마찰 최소한 줄여야

또한 금년 10월부터 실행키로 되어 있는 농지임대차관리법에 의거한 서면임대계약(書面賃貸契約) 체결문제도 그렇다. 이법에 의한 농지 임대차계약체결에 있어서는 3년간의 계약기간과 임대료율(賃貸料率)등 지주와 임차인사이에 상반된 이해관계가 내포되어 있다. 이와같은 지주와 임차인간의 이해가 상반된 정책과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행정지시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실시하기 보다는 지도사업을 통해서 이해당사자에게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시킨 연후에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뿐 아니라 민주행정의 참모습이라 할 수 있다. 즉, 농지의 서면 임대차 계약제도의 배경,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조건 지주와 임차인간의 이해득실등 자료를 소상하게 마련하여 농촌 지도사업을 통하여 이해당사자를 잘 이해시키고 설득한 다음 임대차계약을 유도하므로써 이 정책과제의 실시로 예상되는 부

작용과 마찰을 최소한으로 줄여
한다는 것이다.

2. 농업경영지도의 강화

최근들어 우리농업의 경영형태가 상업적으로 급속하게 전환됨에 따라, 농민들은 어떤 작목을 선택하여 언제 심고 언제 수확하여 어느 시장에 출하해야 보다 높은 농장소득(農場所得)을 올릴 수 있겠는가 하는 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농촌지도사업의 방향은, 종전의 단위면적당 생산성 위주의 다수확재배 기술지도에서 벗어나 농장소득증대에 초점을 맞춘 경영지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농민들에게 농장소득을 높이는 경영원리를 확실히 알도록 지도해야 한다. 즉, 농장소득을 높이려면 『농장의 조수익을 높혀야 하고, 이 조수익을 얻는데 필요한 경영비를 가능한 줄여야 한다. 또한 농산물의 생산량을 늘리면서 판매단가를 높게 받도록 하는 것이 조수익을 높이는 농장경영원리』

라고 할 수 있다.

농장소득을 높이기 위한 경영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경영지도의 구체적인 방안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경영규모 늘려 생산성 제고

첫째, 농장단위에서 농산물의 총생산량을 늘리는 방안은 농장의 경영규모를 확대하는 것과 단위면적당 생산성을 높이는 두 가지가 있다. 또 경영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은 외형적인 규모확대와 내부적인 규모확대의 두 가지가 있다. 그 중 외형적인 규모확대는 농지를 구입해서 확대하는 방법과 차지(借地)로 확대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즘 지가(地價)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농지를 구입해서 규모를 확대하기 보다는 차지(借地)를 이용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한 경영내부에서 규모를 확대하는 방법은 작부체계를 개선하여 1모작만 하던 논을 2모작으로 하거나, 벼농사를 일찍마치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3~4모작을 하게 되면 실질적인 경영규모가 2~4배로 늘어나게 될뿐 아니라 농

지구입자금이나 임차료의 부담 없이 경영규모를 늘릴 수 있으므로 이 방법을 택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한 단위면적당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수성 품종의 선택과 다수확재배기술을 채택해야 한다. 이때 특히 유념해야 할것은 채택코자 하는 다수성 품종이 시장성이 있는지, 자기 포장에 적합한 것인지를 반드시 검토하고 일반재배와 비교하여 경영수지가 높을때 다수확재배 기술을 채택하도록 지도한다.

단가 높이고 경영비 줄여야

둘째, 농산물의 판매단가를 높이는 방안이다. 우선, 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른 농산물 소비성향과 농산물의 시장가격형성 원리, 그리고 정부의 농산물 구매지원사업과 가격예시사업의 대상품목과 지원내용을 확실히 알도록 농민들에게 지도해야 한다. 이 바탕위에서 시장성이 좋은 작목과 품종을 선택토록 한다. 불시재배의 경우에는 고가로 판매할 수 있는 시기에 맞추어 작부시기를 결정토록 한다. 시



상업농시대에 맞춰 농장소득을 높이는 경영지도에 힘써야 한다.

장의 시세가 좋을때는 좀 덜 자랐더라도 조기수확하여 판매토록 한다. 등급별로 선별포장하여 판매토록 하고, 저장성이 있는 품목은 간이저장해 두었다가 단경기에 값이 올랐을때 판매토록 하는등 판매단가를 높이 받는 지도에 주력해야 한다.

셋째, 경영비를 줄이는 방안으로 생력재배기술이다. 영농의 기계화지도에 있어서는, 주요기종에 대한 손익분기점을 확실히 인식시키고, 구입코자하는 농기계를 손익분기점 이상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후에 구입토록 지도한다. 작물재배에 있어서는 제초노력비 절감을 위한 제초제의 효율적인 사용방법을 지도한다.

또한 채소농사의 경우에는 큰 들판에 동일작물의 주산단지

조성하여 하루에 출하하는 양이 대형차량의 수송단위가 되게 하므로써 운송비용을 줄이도록 지도해야한다. 그리고 자가노동력을 년중활용할 수 있도록 복합 영농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 실천토록 하여 농장 전체로서의 조수익을 높이고 경영비를 줄여 농장소득을 높이는 방안도 지도해야한다.

3. 적절한 재배기술 지도

금년 9월부터 실시되는 농산물의 농약잔류검사에 따른 대처방안은, 먼저 우리농민들에게 이 제도를 실시하게된 배경과 검사절차 및 기준, 그리고 기준초과 농산물에 대한 처리기준과 절차를 확실히 인식시키는 것이다. 대책방안으로서는 유독성이 약한 농약을 개발보급하는 과제와 농약잔류허용기준치 이하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적절한 재배기술지도의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농림수산부 당국과 농약공업협회 그리고 농약 생산업체에서 해야할 과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논외키로하고, 이 제도를 실시하게된 배경과 농약잔류허용기준치 이하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적절한 재배기술지도방안에 대해 생각해보자.

적정사용 유도로 잔류막아야

그동안 우리의 농업생산시책은 주곡의 자급달성에 목표를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수확재배기술을 채택하여 왔다. 즉, 내비성(耐肥性)이 강한 다수성 품종을 소주밀식(少株密植)하여 다량의 비료를 시용하고 작물이 병충해에 걸리면 농약으로 방제하여 증산에 힘써왔다. 이에따라 생산된 농산물에 허용치 이상의 농약이 잔류되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농약의 적정사용으로 안전농산물을 생산토록 지도해야 한다.



농촌환경개선을 위해 마을단위의 복개식 하수구가 설치돼야 한다.

하기 위해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 검사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제는 각종 작물의 다수성 품종도 획기적으로 개발보급되었고, 비닐피복재배등 새로운 다수확기술이 개발보급되어 다비·다농약(多肥·多農藥) 사용 기술에 의하지 않더라도 주곡의 자급은 물론이고 기타 농산물도 충분히 생산공급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다비·다농약 사용방식의 다수확 재배기술을 지양하고 앞으로는 적정량의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여 농약잔류허용치 이하의 농산물을 생산토록 해야한다. 즉, 병해충 방제를 위해 농약을 사용할 때는 잔류허용기준치 이하가 되도록 작물별, 농약별로 정

해농은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잘 지켜서 쓰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4. 생활환경개선 지도강화

우리농가의 식생활은 그동안 꾸준한 식생활개선지도와 농가 소득의 증대에 힘입어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본다. 또한 생활 환경에 있어서도 70년대의 새마을사업에 힘입어 주택, 도로, 전기, 상수도 등 많이 향상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여지는 대단히 많다. 그 중에서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개선과제를 알아본다.

입식부엌 및 복개식 하수구로

첫째, 재래식부엌을 입식(立式)부엌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최근에 와서 농촌부녀자들의 영농노동참여구성비가 45%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사노동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가사노동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취사노동을 절감하기 위하여 재래식부엌에

가스렌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부엌개선을 위해서는 100만원 상당의 자금이 소요되므로 정부 보조금이나 장기저리자금을 지원해서라도 개선을 지도조성해야 한다.

둘째, 파리·모기를 없애기 위한 변소개량과 하수구설치문제다. 1950년 당시의 우리 농촌에는 소위 오적(五賊)이라고 일컬어온 이, 벼룩, 빈대, 파리, 모기가 우리 농민들을 괴롭혀왔다. 1950년대에 DDT의 보급으로 이, 벼룩, 빈대는 박멸이 되었으나 파리, 모기는 아직도 봄부터 늦가을까지 성가신 존재로 남아 있다. 파리와 모기를 박멸하기 위해서는 파리의 발생처가 되고있는 재래식변소를 수세식으로 개선하고 모기의 발생처인 유수처를 없애고 복개식하수구를 설치해야한다. 수세식변소를 설치하려면 마을단위의 복개식하수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한다. 이와같은 시설을 설치하는데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므로 마을단위복개식하수구설치는 보조사업으로, 수세식변소는 장

기저리자금의 용자지원을 해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시설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파리모기의 발생처인 재래식변소와 유수처에 이른봄부터 늦가을까지 2주일간격으로 살충제를 일제히 살포하여 발생을 막도록 지도해야한다.

쓰레기처리도 시급한 과제

셋째, 쓰레기없는 생활환경개선지도과제다. 요즘 우리 농촌, 농가에는 농업용비닐, 각종 상품포장용비닐, 빈병, 담배꽂초 등 각종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어 생활환경을 더럽히고 있다. 종전에는 농가마다 아궁이가 있어 이러한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농가의 가온시설도 연탄이나 석유보일러로 개조되어 아궁이가 없어져 소각할 수도 없게 되었다. 쓰레기를 없애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는 반드시 한 곳에 모으는 의식향상이 시급하지만 마을단위에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여 이를 소각하는 지도가 병행되어야 한다.